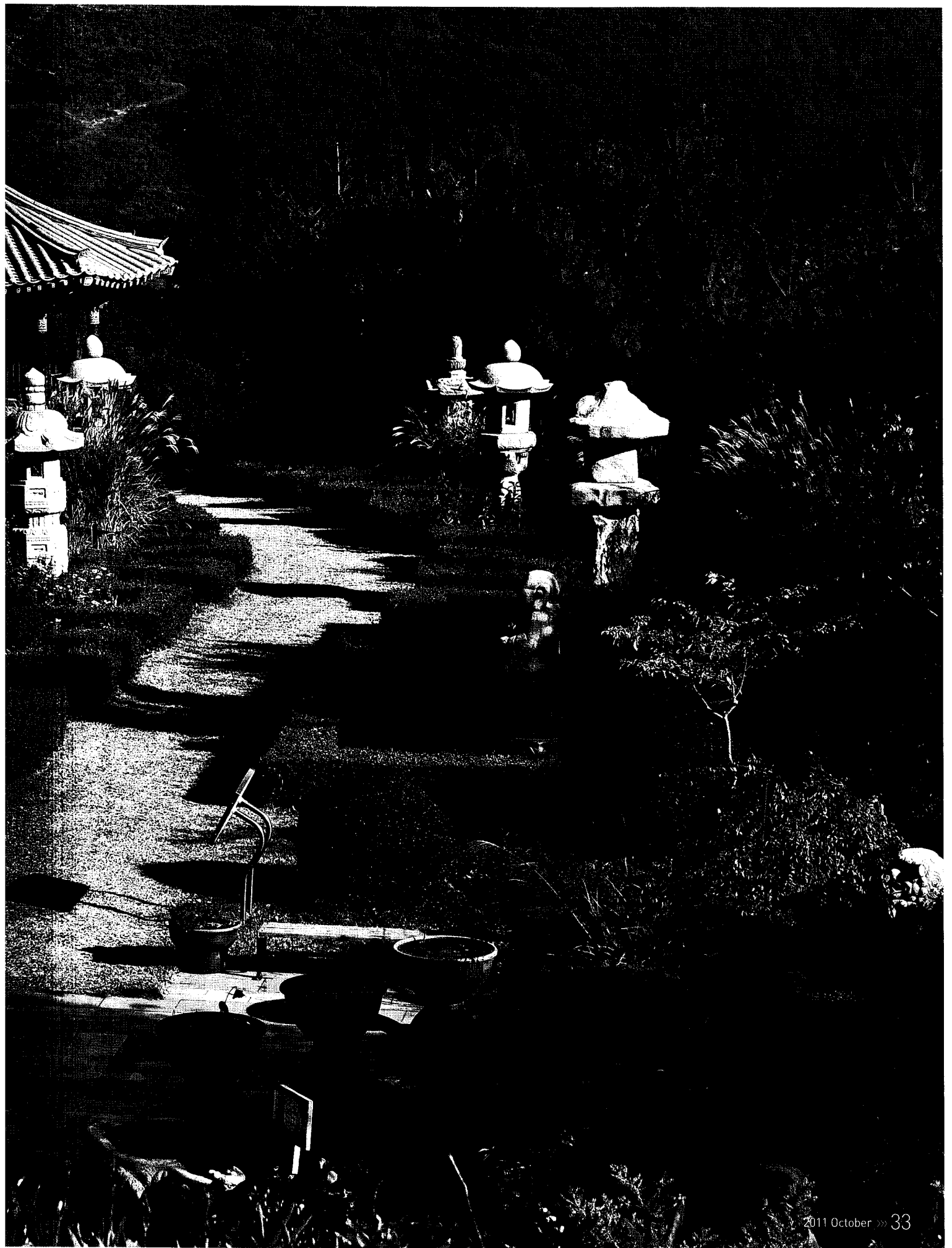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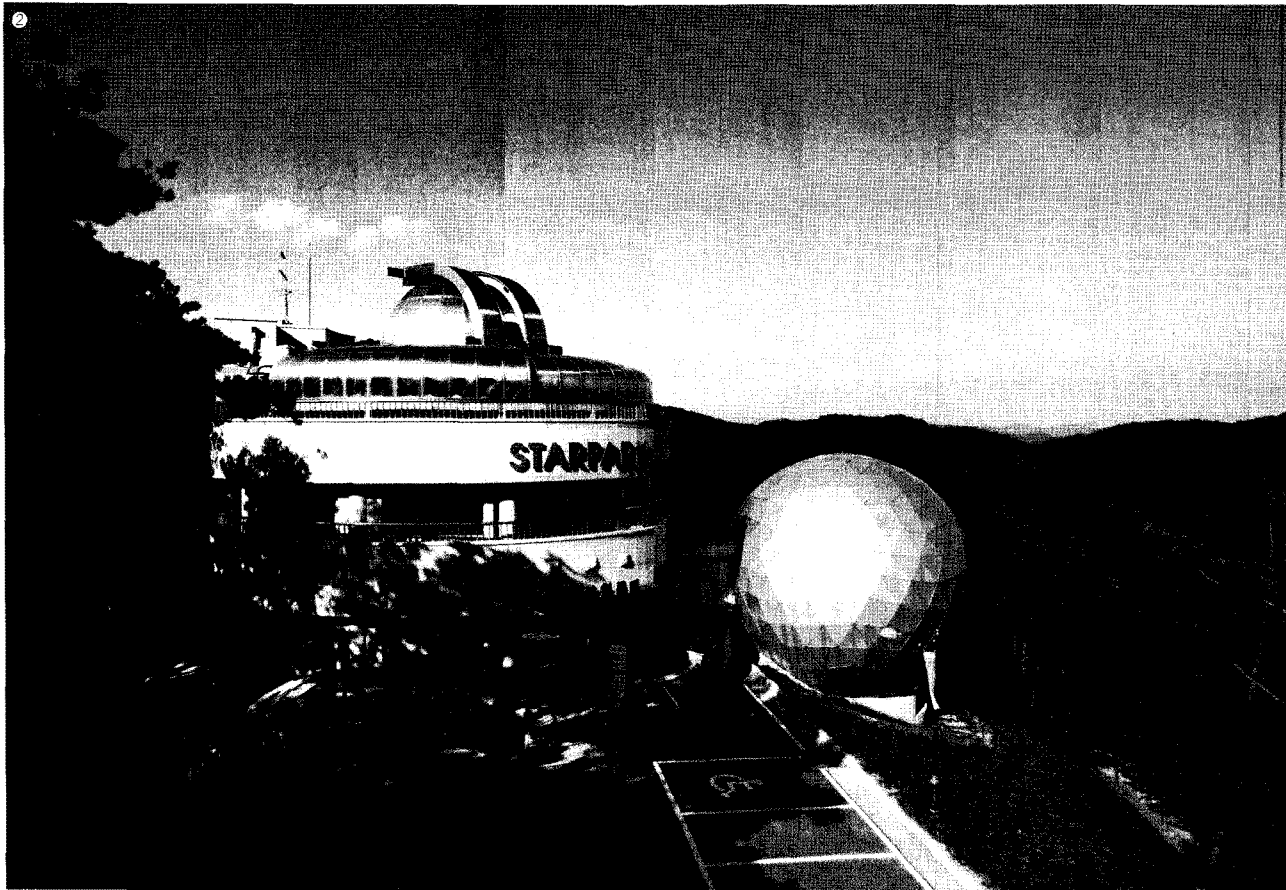
지혜 깊어지는 건강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글 이윤미 사진 정양근정 제공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의 가을정취 만나러 청양으로





높지 않다고 쉽게 볼 수 없는 산이 칠갑산이다. 산세가 험해 '충남의 알프스' 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교통이 불편한 탓에 사람 손때가 많이 묻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다.



“콩밭 매는 아낙네야” 구슬프게 들려오던 그 노래. 대중가요 ‘칠갑산’을 통해서 ‘칠갑산’의 이름을 알게 됐다. 노래 한 곡으로 ‘청양’이라는 지명보다 청양에 있는 칠갑산을 먼저 알게 된 것이었다. 청양은 내륙 깊숙한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더욱 외로운 곳일지 모른다. 그런 청양이 가을에 닿았다.

칠갑산에 콩밭 아낙네는 없지만, 천문대에서 우주소를 보다
누가 뭐래도 청양 여행의 시작은 칠갑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칠갑산은 안성 칠정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금북정맥 한가운데 자리한다. 계룡산, 가야산과 함께 충남의 삼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유명세에 비해 산은 웅장하지 않다. 해발 560미터로 명산치고는 높이가 낮은 축에 들지만, 생태적으로는 큰 산이다.

칠갑산은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3개 면(대치면, 정산면, 장평면)의 경계에 걸쳐 있지만 면적은 3만 2,542km²으로 그리 넓지 않다. 대치천, 장곡천, 지천, 잉화달천, 중추천 등이 산의 능선을 따라 계곡을 이루다가 금강으로 흘러간다. 계곡들이 깊고 급한데 지천과 잉화달천이 계곡을 싸고돌아 명당이 7곳 있다 하여 칠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높지 않다고 쉽게 볼 수 없는 산이 칠갑산이다. 산세가 험해 ‘충남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교통이 불편한 탓에 사람 손때가 많이 묻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다.

산 정상까지 오르는 관광도로가 나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정상 부근의 휴게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가는 곳곳에 벤치와 발을 마사지 할 수 있는 건강로를 만들어 두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며 자연석과 어울려 경치가 아름답다. 또한, 자연석 주변에 자생란이 자라고 산 곳곳에서 구기자, 송이버섯, 싸리버섯, 고사리 등이 많이 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산을 오르면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콩밭 매는 아낙네는 보이지 않는다. 아낙네 대신 칠갑산 천문대 ‘Star Park’가 있다. 천문대는 청소년과 등산객 등 일반시민에게 천체 관측을 통해 우주과학을 체험하게 하는 테마과학관이다. 천문대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천체투영

실, 시청각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전망대, 청양홍보실 등이 있다. 3층에는 주관측실, 전망대, 보조관측실이 있다. 가을 밤 현란한 우주를 보고 싶다면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잠시 들렀다 가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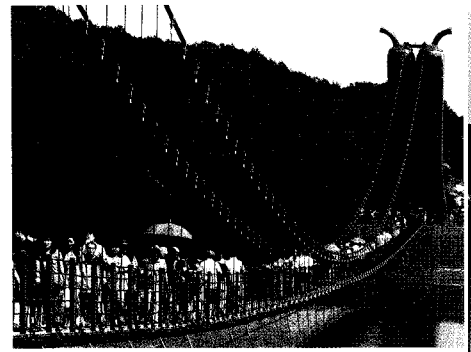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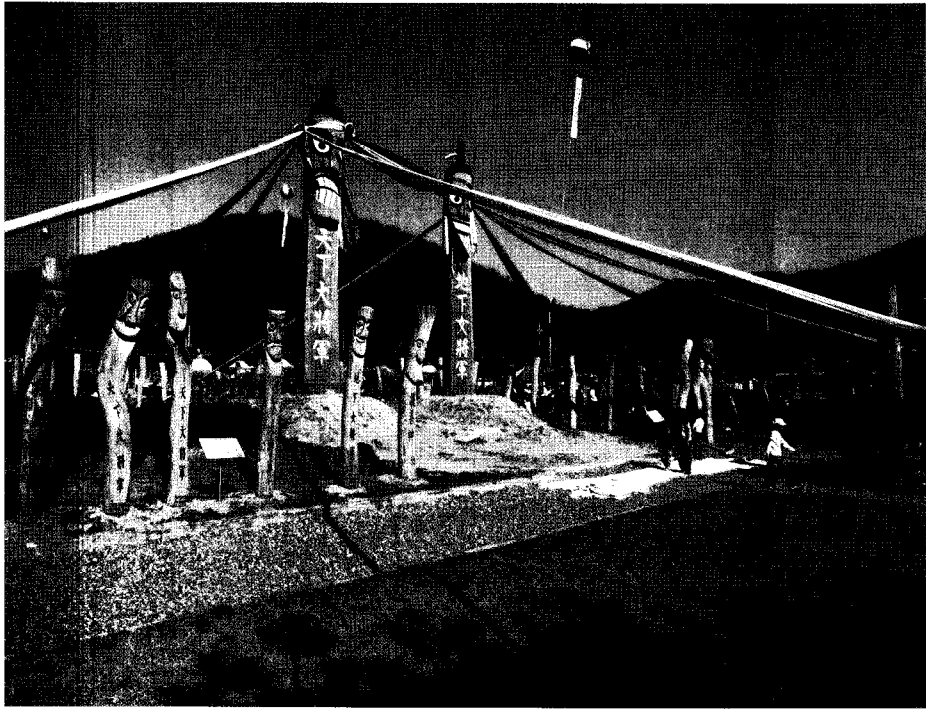
멸종위기 식물을 지키는 곳

칠갑산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은 고운식물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온갖 야생화와 나무들이 고운 향기를 내뿜어내며 사람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식물들이 정갈하게 모여 아름다운 자태를 내뿜고 있는 곳. 고운식물원은 때마침 찾아온 어린이와 가족 나들이객에게 아늑한 향을 내뿜으며 포근히 감싸 안아준다. 식물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며 그 사이로는 조각상들이 얼굴을 내밀어 자연미와 조형미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식물원에는 총 8,200여 종의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그중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된 히어리나 미선나무, 둥근잎평의비름, 연잎평의다리, 깽깽이풀, 광릉요강꽃, 개병풍 등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온갖 생명들이 평안하게 있는 식물원에서 더불어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식물원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시간 30분, 50분의 산책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손수건 꽃물들이기, 허브비누 만들기, 나무 곤충 만들기 등을 통해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체험을 즐기는 것도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 될 것이다.

1. 온갖 야생화와 나무들이 고운 향기를 내뿜어내며 사람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2. 칠갑산 천문대 ‘Star Park’가 있다.
3. 청양이 가을에 닿았다.
4. 가을밤 현란한 우주를 보고 싶다면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잠시 들렀다 가도 좋겠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장승을 세운다.

청양을 지켜온 장승, 장승을 모시는 청양

청양은 공주와 함께 장승문화가 충청도에서 가장 뿌리 깊은 지역이다. 마을 곳곳에 마을 사람들이 깎아 만든 나무 장승들이 길가에 나와 객들을 맞이한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장승을 세운다. 장승은 마을 지역 간의 경계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을 입구에 세운 장승에서 사람들은 제를 지내며 마을의 태평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장승으로 쓰일 나무를 베러 산으로 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모시러 간다' 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장승은 산에서 내려온 자연인 것이다.

청양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칠갑산 고갯마루에 있는 대치리, 칠갑산 주변의 천장마을, 용두리 마을은 청양 내에서도 이색적인 장승이 많은 곳이다. 대치리의 장승은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장승으로 얼굴 표정이 제각각인 것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

청양 칠갑산 장곡사에 올라가는 길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장승 공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승을 비롯하여 해외

장승까지 총 350여 개의 장승이 있다.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은 물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장승 등이 마치 우리 이웃처럼 정감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승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승 보존 지역으로 해마다 4월이면 전국의 장승 조각가와 축제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장승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MEDYCHECK**

청양의 매운맛 청양고추



칠갑산 중심의 부식질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청양의 고추는 강하고 빛깔이 곱고 과육이 두껍다. 또한, 청양 지형이 산간계곡과 분지형태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함량이 높아 매운맛으로 유명하다. 청양고추는 미네랄을 비롯하여 칼슘, 비타민 A와 C는 물론 유기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